

화성소방서 관련 언론보도 현황

구 분	계	보 도 내 용			
		긍정	부정	동정	일반
계	10	.	.	.	10
신 문	10	.	.	.	10
TV(방송)	.	.	.	.	.
기 타	.	.	.	.	.



경기도소방

화성소방서

언론보도사항목차

신문보도

순번	제 목	언론사	면수	페이지
1	화성소방서, 의용소방대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실시	경기IN	·	1
2	화성소방서, 의용소방대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실시	경기도민일보	·	2
3	화성소방서, 의용소방대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실시	시대일보	·	3
4	화성소방서 · 의용소방대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실시	중부뉴스	·	4
5	화성소방서, 의용소방대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실시	중부일보	·	5
6	화성소방서, 의용소방대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실시	화성 인터넷신문	·	6
7	화성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실시	화성타임즈	·	7
8	화성소방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실시	도민일보	006	8
9	불법 폐기물 불명예 화성시, 폐기물 처리시설 화재 ‘골머리’	경인일보	·	9
10	화성시, 폐기물 처리시설 화재 골머리	경인일보	008	10

화성소방서, 취약계층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촉진 및 화재피해 차감을 위해

오호세 기자 00 | 기사입력 2020/05/21 (17:39)



▲ 장남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모습. © 화성소방서

【화성=오호세 기자】 화성소방서(서장 조창영)는 10일부터 11일까지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촉진 및 화재피해 차감을 위해 장남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소방시설 무료 설치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화성소방서는 화재예방과 화력소방대의 부담을 줄여 2010년부터 10년간 주택용소방시설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올해도 화성소방서 직원소방대원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장남취약계층 8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방화덮개, 방화문)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계절은 여름에 접어들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을 연기해보다, 불합기 장남취약계층의 화재예방을 위해 비정액·화성인민회 등을 통해 방문을 진행 하고 있다. 대상자의 불의가 있는 경우에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생활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부·불의 외에도 지동리의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8차, 9차마침 등을 통해 불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불의방지의 체계적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을 진행중에 있다.

조창영 화성소방서장은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의 영향을 미칠 수방기의 불의방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불의방 계획이다” 라고 말하며, “장남취약계층과 더불어 나아가 전 부들의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화성소방서, 의용소방대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 화성=유정연기자 ▶ 승인 2020.10.21 06:25 ▶ 댓글 0

화성소방서(서장 조창래)는 10월부터 11월까지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촉진 및 화재피해 저감을 위해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소방시설 배부 및 설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화성소방서는 직원들과 의용소방대의 도움을 받아 2010년부터 10년간 주택용소방시설을 배부해오고 있다. 올해도 화성소방서 의용소방대원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계층 9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배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계속된 연초에 세웠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배부를 연기해오다, 동절기 재난취약계층의 화재예방을 위해 비접촉·최소인원을 활용해 배부를 진행 하고 있다.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생활안전수칙을 준수하며, 배부 및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배부·설치 외에도 자율적인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SNS, 영상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설치관리의 체계적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진행중에 있다.

조창래 화성소방서장은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하는 소화기의 중요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재난취약계층과 더불어 나아가 전 주택의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소방서, 의용소방대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실시

박정길 기자 | 기사입력 2020/10/21 [15:13]

화성소방서(서장 조창래)는 10월부터 11월까지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촉진 및 화재피해 저감을 위해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소방시설 배부 및 설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화성소방서는 직원들과 의용소방대의 도움을 받아 2010년부터 10년간 주택용소방시설을 배부해오고 있다. 올해도 화성소방서 의용소방대원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계층 9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배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계획은 연초에 세웠졌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배부를 연기해오다, 동절기 재난취약계층의 화재예방을 위해 비접촉·최소인원을 활용해 배부를 진행 하고 있다. 대상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생활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배부 및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배부·설치 외에도 자율적인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SNS, 영상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설치관리의 체계적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진행중에 있다.

조창래 화성소방서장은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하는 소화기의 중요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재난취약계층과 더불어 나아가 전 주택의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화성소방서·의용소방대,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실시



화성소방서는 10월부터 11월까지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촉진 및 화재피해 저감을 위해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소방시설 배부 및 설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화성소방서는 직원들과 의용소방대의 도움을 받아 2010년부터 10년간 주택용소방시설을 배부해오고 있다. 올해도 화성소방서 의용소방대원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계층 9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배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계획은 연초에 세웠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배부를 연기해오다, 동절기 재난취약계층의 화재예방을 위해 비접촉·최소인원을 활용해 배부를 진행 하고 있다.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생활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배부 및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배부·설치 외에도 자율적인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SNS, 영상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설치관리의 체계적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진행중에 있다.

조창래 화성소방서장은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하는 소화기의 중요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재난취약계층과 더불어 나아가 전 주택의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화성소방서, 의용소방대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실시

★ 신광광 | 2020.10.21 19:28 | 0 댓글 0



화성소방서는 10월부터 11월까지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촉진 및 화재피해 저감을 위해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소방시설 배부 및 설치한다고 21일 밝혔다. 화성소방서는 의용소방대의 도움을 받아 2010년부터 10년째 주택용소방시설을 배부하고 있는데 올해는 화성소방서 의용소방대원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계층 9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배부하고 있다.

소방서는 올해 초 사업계획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기하다 동절기 재난취약계층의 화재예방을 위해 비접촉 및 최소 인원을 동원해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배부하고 있다.

특히 화성소방서와 의용소방대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배부설치와 별도로, 자율적인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SNS, 영상매체를 활용해 홍보하는 가운데 설치관리의 체계적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병행중이다.

조장래 화성소방서장은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하는 소화기의 중요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재난취약계층과 더불어 나아가 전 주택의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정균기자

화성소방서, 의용소방대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실시

화성인터넷신문 | 기사입력 2020/10/21 (13:19)



© 화성인터넷신문

【화성인터넷신문】출발전 기자=화성소방서(서장 조철래)는 10월부터 11월까지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촉진 및 화재피해 경감을 위한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소방시설 배부 및 설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화성소방서는 직영들과 화성소방서의 도움을 받아 2010년부터 10년간 주택용소방시설을 배부해오고 있다.

올해도 화성소방서 의용소방대원들이 기증받은수령자 등 재난취약계층 9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소방시설(스모기, 단독발보탈장치) 배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계획은 엄중히 지켜졌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배부를 연기해왔다. 올같이 재난취약계층의 화재예방을 위해 비면속·외출인원을 줄이며 배부를 진행 하고 있다. 대상자의 물리가 있는 경우에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생활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배부 및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배부·설치 외에도 지속적인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율 위한 SNS, 협동매점 등을 통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설치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진행중에 있다.

조철래 화성소방서장은 "동계 휴가에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하는 스모기의 중요성을 다방면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한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재난취약계층과 더불어 나아가 전 주택의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배부 및 설치 진행

재난취약계층 900여 가구 대상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배부 목표
동질기 재난취약계층 화재예방 위해 비검측·최소인원 활용 배부 진행

박정열 기자 · 기사입력 2020/10/21 12:15PM



화성소방서 주택용소방시설의 주민용 소년시설 설치 활동으로 화재예방을기대하는 분위기
박정열 기자

화성소방서(서장 조창래)는 10월부터 11월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및 화재피해 저감을 위해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배부 및 설치를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화성소방서는 직원들과 외용소방대의 도움을 받아 2010년부터 10년간 주택용 소방시설을 배부해오고 있다. 올해도 화성소방서 의용소방대원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계층 9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배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당초 계획은 연초에 세워졌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배부를 연기해오다가, 동질기 재난취약계층의 화재예방을 위해 비검측·최소인원을 활용해 배부를 진행하고 있다.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생활안전수칙을 준수해 배부 및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배부·설치 외에도 저율적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SMS, 영상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설치관리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에 있다.

조창래 화성소방서장은 “현재 초기에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하는 소화기의 중요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라며, “재난취약계층과 더불어 나아가 전 주택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소방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실시

화성소방서(서장 조창래)는 10월부터 11월까지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촉진 및 화재피해 저감을 위해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소방시설 배부 및 설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화성소방서는 직원들과 의용소방대의 도움을 받아 2010년부터 10년간 주택용소방시설을 배부해오고 있다. 올해도 화성소방서 의용소방대원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계층 9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배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계획은 연초에 세웠졌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배부를 연기해오다, 동절기 재난취약계층의 화재예방을 위해 비접촉최소인원을 활용해 배부를 진행 하고 있다.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생활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배부 및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배부설치 외에도 자율적인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SNS, 영상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설치관리의 체계적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진행중에 있다.

조창래 화성소방서장은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하는 소화기의 중요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재난취약계층과 더불어 나아가 전 주택의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용만중 기자

불법 폐기물 불명에 화성시, 폐기물 처리시설 화재 '골머리'

김태성 기자 발행일 2020-10-22 제8면

2017년 14건서 2018년 52건 '급증'
지난해도 37건... 재산피해 119억
일각 '업체, 처리않고 적재' 의심도

화성시가 불법 폐기물 대량 발생지역이라는 불명예(10월20일자 8면 보도='불법폐기물 1위' 화성시...처리장 건립 '뒷짐') 속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화재 역시 늘고 있어 골치를 썩고 있다.

21일 화성소방서 및 화성시 등에 따르면 화성시 관내 폐기물 처리시설 화재는 지난 2017년 14건에서 2018년 52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37건이나 발생했다. 재산 피해 역시 2018년 13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19억원으로 훌쩍 뛰었다.

이 때문에 최근 폐기물 업체 화재가 화성시에서 '연중행사'란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

화성시의 경우 지난 1월에도 향남읍에 있는 폐기물 재활용 공장 2개 동에서 큰불이 났고, 지난 4월 화성시 서신면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도 큰불이 발생했다.

서신면 화재의 경우 폐기물 규모가 워낙 커 잔불을 진화하는 데까지 1주일 이상이 걸렸다. 폐비닐을 보관하던 가설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유독가스 등이 발생했고 강풍까지 불면서 주변 피해로까지 확대됐다.

화성소방서 관계자는 "가연성 폐기물을 장기 보관하면 열 축적으로 화재 위험성이 상존하게 된다"며 "플라스틱 등 폐기물이 다량 쌓여있어 진화에도 어려움이 있고, 심각한 환경오염으로도 이어진다"고 말한다.

일각에서는 일부 폐기물 업체가 폐기물 처리를 하지 않고 적재만 하다 부실한 안전관리로 화재를 유발하고 있다는 의심도 하고 있다.

폐기물 업체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이 약해져라는 지적이 있는데, 실제 노지에서 폐기물을 야적하는 경우 건물형태가 아니어서 소방법령을 적용키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에 화성시와 화성소방서는 특별점검반 운영과 자율안전관리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통해 적극적인 예방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폐기물 업체) 화재 위험요인 사전 제거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도 다수의 과태료 부과와 조치명령을 내렸다"며 "폐기물 시설의 현대화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화성시, 폐기물 처리시설 화재 ‘골머리’

<불법 폐기물 불명예>

2017년 14건서 2018년 52건 ‘급증’
지난해도 37건... 재산피해 119억
일각 ‘업체, 처리않고 적재’ 의심도

화성시가 불법 폐기물 대량 발생지역이라는 불명예(10월20일자 8면 보도) 속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화재 역시 늘고 있어 골치를 썩고 있다.

21일 화성소방서 및 화성시 등에 따르면 화성시 관내 폐기물 처리시설 화재는 지난 2017년 14건에서 2018년 52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37건이나 발생했다. 재산 피해 역시 2018년 13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19억원으로 훌쩍 뛰었다.

이 때문에 최근 폐기물 업체 화재가 화성시에서 ‘연중행사’란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

화성시의 경우 지난 1월에도 향남읍에 있는 폐기물 재활용 공장 2개 동에서 큰 불이 났고, 지난 4월 화성시 서신면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도 큰불이 발생했다. 서신면 화재의 경우 폐기물 규모가 워낙 커 잔불을 진화하는 데까지 1주일 이상이 걸렸다. 폐비닐을 보관하던 가설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유독가스 등이 발생했고 강풍까지 불면서 주변 피해로까지 확대됐다.

화성소방서 관계자는 “가연성 폐기물을 장기 보관하면 열 축적으로 화재 위험성이 상존하게 된다”며 “플라스틱 등 폐기물이 다량 쌓여있어 진화에도 어려움이 있고, 심각한 환경오염으로도 이어진다”고 말한다.

일각에서는 일부 폐기물 업체가 폐기물 처리를 하지 않고 적재만 하다 부실한

안전관리로 화재를 유발하고 있다는 의심도 하고 있다.

폐기물 업체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라는 지적이 있는데, 실제 노지에서 폐기물을 야적하는 경우 건물 형태가 아니어서 소방법령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에 화성시와 화성소방서는 특별점검반 운영과 자율안전관리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통해 적극적인 예방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폐기물 업체) 화재 위험요인 사전 제거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도 다수의 과태료 부과와 조치명령을 내렸다”며 “폐기물 시설의 현대화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